

# 아베, 강경 우파 대거 포진 개각 뒤 “한국, 국가 간 약속 지켜라”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1일 한국에 대해 강경하고 우파 성향인 인물들을 주요 각료로 기용하는 개각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개각 뒤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침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고 강조했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개각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을 외무상으로,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임명했다. 수출규제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성의 수장에도 보수색이 강한 스가와라 잇슈가 취임했다.

모테기 새 외무상은 경제재생상 시절 미-일 무역협정의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내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텁다.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은 외무상 시절인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 “무례하다.” 고 공격했으며,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앞장서 했던 인물이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상의 이런 태도를 아베 총리가 의연한 대응이라고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주요 각료로 또다시 기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가와라 신임 경제산업상도 보수적인 인물이며, 아베 정부의 ‘2인자’로 핵심 인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과 가깝다.

아베 총리는 개각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이 일-한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방적 위반 행위 등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제법에 근거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원한다. 이런 방침은 일관되며, (개각 뒤) 새로운 체제에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한국은 우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다른 주요 신임 각료에도 문부과학상에 하기우다 고이치, 다카이치 사나 총무상,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 등 아베 총리의 측근이자 우파적 성향이 농후한 인물이 다수 포진됐다.

# 멕시코, 미국에 총기 밀매 차단 촉구 “범죄 총기 70% 미국서 유입”



멕시코가 미국 정부에 멕시코로의 불법 총기 밀매를 차단해달라고 촉구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전날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총기 밀매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미국 정부에 이민 문제가 우선순위인 것처럼 멕시코는 총기 밀매 통제를 우선순위 안건으로 제시했다.”며 “(멕시코에서) 범죄에 사용된 무기의 70%가 미국에서 왔다. 목표는 무기 밀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10일 워싱턴 회동은 에브라르드 장관이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멕시코 불법 이민 차단 대책의 성과를 점검한 자리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회동 전부터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불법 이민자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불법 무기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에브라르드 장관은 “멕시코가 (이민 문제에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미국 정부도 (무기 밀매와 관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 국경 무기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정부 부처와 군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프랑스 법원, 사우디 공주 집행유예 10개월 선고



프랑스 법원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하사 빈트 살만(43·사진) 공주에게 10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하사 빈트 살만 공주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의 딸이며, 사우디의 실세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누나다.

공주는 2016년 9월 파리 서부 포슈 길에 위치한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경호원에게 수리 작업을 하던 이집트계 인부 아슈라프 아이드를 폭행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디가드는 인부의 팔을 묶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강제로 공주의 발에 키스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작업을 위해 휴대전화로 집 내부 사진을 찍던 중 공주가 사진을 언론에 팔려갈 것 아니냐며 보디가드를 시켜 자신을 폭행했고, 이후 수 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주간지 ‘르 푸앵’은 공주가 당시 “그를 죽여라. 그개를. 그는 살 가치가 없다.” 고 소리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판결 후 살만 공주 변호인은 아이드의 진술은 거짓으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아무런 폭행이 없었다.”면서 “조사 결과나 진단서 등은 아이드의 주장이 상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 주장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